# 경춘곡

## [해제]

<경춘곡>은 서울의 봄을 뜻하는 '京春' 또는 봄날의 경사스러운 일을 뜻하는 '慶春'이라는 가사작품이다. 제목으로 보아 기행가사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경로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춘곡>은 전적형태의 필사본으로 줄글형태로 하여 7면에 걸쳐 있다. 이 전적에는 앞표지에 『츈몽가』라 쓰여 있으며, <경춘곡> 뿐만 아니라 <도덕가>, <츈몽가> 등 세 작품이 실려 있다. 특이한 점은 <츈몽가>를 제외한 나머지 두 작품은 모두 파란색 볼펜으로 필사하였는데, 이로 보아 필사시기는 1970년대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춘곡>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모두가 새롭고 새롭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작품이다. 곧 바라면서 봄날의 질탕한 놀이를 통해 태평성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옛 고사를 중간에 섞어 내용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낱말을 남발하고 있어 작품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원문]

경춘곡
어아 벗님내야 이술한잔 마셔보소
백년삼만 육천이래 인간칠십 고래히라
명조우 일년에 권근갱전 일배주라
이해도 다시물고 이밤도 다샜다
낡은해 세배하고 새해덕담 드러보소
상경전 사경호는 무신년 오경삼천마치고
북두칠성 도라오네
태새은 쳥룡이요 권저는 복송이라
정월 대보름날 고개일이 되던말던
사일득신 백곡이 풍든하고
칠용치수 우양이 득중하고
일년에 재금춘하니 꽃잘피고 실과많다
천덕월덕 유학덕이 이십사절 처녀되니
십팔요 풍년에 금년도 겅모 대풍이라
경술탄생이라 천일경문 다시보니
주상천하 대비천하 천천새요
당재궁 천천새라 황천이 무고하사
산호재산호요 신연이 대경하니라
삼백련 종묘사직 억만년 무강경복
상광은 오운되고 하기는 백로로다
산천이 빛이나고 초목이 새로워라
동서남북 수천리에 삼백육십 군현가가
이인인이 회색이로다 양친구경 안녕하고
형제처자 안락하고 다방머리 장가들고

애암덕이 시집간다
젊은실랑 아들낳고 늙으신네 손자보고
남자는 밭을갈고 지에미는 베를짠다
급제하고 구사하니 벼슬하고 장색은 사망일고
여름에 병이없어 사람이 장수하고
도적이 없엇으니 문닫어 무엇하리
바람도 아니부니 화금도 염려없다
추우면 옷이있고 배고프면 밥이있네
먼산에 나물좋고 바다에 고기많다
술집일지 떡집일지 돈없어도 거저주네
백물이 번성하고 만사여의하다
여와우리 백성들은 뉘덕을 입었는고
요순같은 우리선군 우뢰같이 우외계셔
조정이 총명하고 국가가 승평하니
암이성적 원님마다 청백명관
관속은 포음없고 민가에 자페없다
관청은 송사없고 옥문이 비었으니
무헤씨 갈천씨 인심인가 신구에세
대명이뢰 고사를 페할세냐
입춘대길 근양대경 기도마다 주려니오
신당으로 양모삼만 대문마다 부작이라
남녀노소 새의복에 절배 홍빛이로다
노인네 떡국조반 내일도 한사발
아희들아 자지마라 아우괭이 내려온다
앵매기 연날리기 상상괘 윷을놀고
마을에 제용치니 관가에 걸고
편싸움 널뛰기와 놀음도하고 투전도하고
선사 잠이동명 부처님께 점지하고
지신푸리 성주푸리 무녀도 여할시
저건너 김판사집 점괘를 내니
청용 자손일진 눈에 천하태평 사방에 무일세라
일이좋은 이세월에 아니놀고 무었하리
함흥은 대대회라 궁중에 제일승지
강산으로 수를놓고 유대로 그림그려
시원할사 낙빈노라 명미할사
진악전에 만세 교시리 긴무지게
남누흥부 태주로 배반이 낭자하고
시목이 예미하니 이적선이 뉘아니며

두목진은 자네로서 얼음으로 덩을삼고
수레바퀴 해를지니 금은치랴 낮같으니
월하에 무었하랴 양행흥분은 북방이라
일곡 생간은 문소로 옛소리라
초장은 몽금척이요 이장은 흔반도라
삼장은 표교라오사 오장은 항별고
구경곡으로 노리하고 사중가로 노리하니
삼은가시 호시월에 홍로일초 다시올라
천일주 가득부어 우리 임금께
이술한잔 가져다가 만년∝∝ 드리리라
몽루고허 바라보니 여비동락 하여어라

## [현대역]

경춘곡
어와 벗님네야 이 술 한 잔 마셔보소
백년삼만 육천이래 인간칠십 고래희1라
명조우 일년2에 권군갱잰 일배주3라
이 해도 다 저물고 이 밤도 다샜다
낡은 해 세배4하고 새해 덕담 들어보소
상경전 사경호는 무신년 오경상천 마치고
북두칠성 돌아오네
태세는 청룡이요 권저는 복송이라
정월 대보름날 고개일이 되든말든
사일득신 백곡이 풍성하고
칠용치수 우양이 득중하고
일년에 재금춘5하니 꽃 잘피고 실과 많다
천덕6월덕7 유학덕이 이십사절 처녀되니
십팔요 풍년에 금년도 경모 대풍이라
경술탄생이라 천일경문 다시 보니
주상천하 대비천하 천천세요
당재궁 천천세라 황천이 무고하사
산호재산호요 신년이 대경하니라
삼백년 종묘사직 억만년 무강경복8
상광은 오운9되고 하기는 백로로다
산천이 빛이 나고 초목이 새로워라
동서남북 수천리에 삼백육십 군현가가
이인인이 회색이로다
양친구경 안녕하고 형제처자 안락하고
다방머리 장가들고 애암덕이 시집간다
젊은 신랑 아들낳고 늙으신네 손자보고
남자는 밭을 갈고 지어미는 베를 짠다
급제하고 구사10하니 벼슬하고 장색은 사망일고
여름에 병이 없어 사람이 장수하고
도적이 없으니 문닫어 무엇하리
바람도 아니부니 화금도 염려없다
추우면 옷이 있고 배고프면 밥이 있네
먼 산에 나물 좋고 바다에 고기많다
술집일지 떡집일지 돈없어도 거저주네

백물이 번성하고 만사여의11하다
어와 우리 백성들은 누구 덕을 입었는가
요순같은 우리 성군 우레같이 위에 계셔
조정이 총명하고 국가가 승평12하니
암이성적 원님마다 청백명관
관속13은 포음없고 민가에 자폐14 없다
관청은 송사15없고 옥문16이 비었으니
무회씨17 갈천씨18 인심인가
신구에세 대명의리 고사를 폐할소냐
입춘대길19 건양다경20 기도마다 주려니오
신당으로 양모삼만 대문마다 부적이라
남녀노소 새의복에 절배홍 빛이로다
노인네 떡국조반 내일도 한사발
아이들아 자지마라 아우괭이 내려온다
액막이21 연날리기 상상괘 윷을 놀고
마을에 제용치니 관가에 걸고
편싸움 널뛰기와 놀음도 하고 투전도 하고
선사 잠이동명 부처님께 점지하고
지신풀이22 성주풀이 이무녀 되어할 때
저 건너 김판사집 점괘를 내니
청룡자손 일진 눈에 천하태평 사방에 무일세라
일이 좋은 이 세월에 아니놀고 무엇하리
함흥은 대대회라 궁중에 제일승지
강산으로 수를 놓고 유대로 그림 그려
시원할사 낙빈노라 명미할사
진악전에 만세 교시리 긴무지게
남루흥부 태주로 배반이 낭자하고
시목이 예미하니 이적선23이 뉘아니며
두목진은 자네로서 얼음으로 덩을 삼고
수레바퀴 해를 지니 금은치라 낮같으니
월하에 무엇하랴 양행흥분은 북방이라
일곡 생간은 문소로 옛소리라
초장은 몽금척24이요 이장은 흔반도라
삼장은 표교라오 사오장은 항별고구
경곡으로 놀이하고 사중가로 놀이하니
삼은가시 호시월에 홍로일초 다시 올라
천일주 가득부어 우리 임금께
이 술 한잔 가져다가 만년∝∝ 드리리라

경춘곡

몽루고허 바라보니 여민동락25 하였어라

[각주]

1) 인간칠십고래희(人間七十古來稀) : 인간의 나이 칠십은 예부터 드물었음. 두보(杜甫)의 시 <곡강(曲江)>에 나오는 구절.
2) 명조우일년(明朝又一年) : 내일 아침 또 한해.
3) 권군갱진일배주(勸君更進一杯酒) : 그대에게 권하여 또 한 잔 술을 올리니. 중국의 시인 왕유(王維)의 <송원이사안서(送元二使安西)>에 나오는 구절.
4) 세배(歲拜) : 섣달 그믐이나 정초에 웃어른께 인사로 하는 절.
5) 재금춘(再今春) : 다시 봄이 찾아옴.
6) 천덕(天德) : 만물을 풍성하게 하는 하늘의 덕.
7) 월덕(月德) : 만물을 풍성하게 하는 달의 덕.
8) 무강경복(無疆慶福) : 경사와 복이 끝이 없음.
9) 오운(五雲) : 오색구름.
10) 구사(求仕) : 벼슬을 구함.
11) 만사여의(萬事如意) :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짐.
12) 승평(昇平) : 나라가 태평함.
13) 관속(官屬) : 지방 관아의 아전과 하인.
14) 자폐(滋弊) : 폐단이 되풀이 됨.
15) 송사(訟事) : 소송(訴訟)
16) 옥문(獄門) : 감옥.
17) 무회씨(無懷氏) : 중국의 태고적 제왕.
18) 갈천씨(葛天氏) : 중국의 태고적 제왕.
19) 입춘대길(立春大吉) : 입춘을 맞이하여 길운을 기원하며 벽이나 문짝 등에 써 붙이는 글귀.
20) 건양다경(建陽多慶) : 따뜻한 기운이 돌아 좋은 일이 많다는 뜻.
21) 액(厄)막이 :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는 일.
22) 지신(地神)풀이 : 굿에서 땅을 다스리는 신령의 근원을 풀어 밝히는 과정.
23) 이적선(李謫仙) : 당나라 때의 시인 이백을 가리킴.
24) 몽금척(夢金尺) : 금척무(金尺舞)를 출 때에 쓰는 도구로 금빛이 난다. 조선 태조가 건국하기 전에 꿈에 신선이 나타나 주었다는 자를 상징하여 만들었다.
25) 여민동락(與民同樂) : 백성과 더불어서 즐거움을 함께 함.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